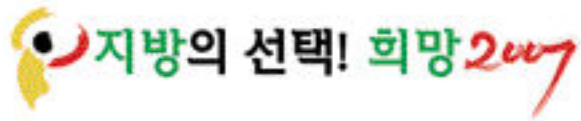


[종합·국제]



대선 D-1 전국 민심 기행

<下> 경기·인천, 대전·충청, 강원

“먹고 살기 괜찮게 해 줄 후보 짚겠다”

■ 경기·인천

열어진 지역색...李 대세론 우세

◇경기=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독주 체제속에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등 범여권은 후보 단일화 부진 등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도내 대선 판세는 사실상 한나라당 이 후보 주도세를 내년 4월 총선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발판 마련의 의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맞선 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석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당과 후보의 지지율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양상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은 도내 곳곳에 선거사무실을 마련 창당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올 대선 승패를 가르는 정치환경과 선거구도, 후보역량 검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한나라당 이 후보가 경기 도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비롯 이 후보 지지자들은 현 대선판세를 낙관하며 투표율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 후보의 단일화 실패와 BBK 뇌관의 파괴력 대비

등으로 판세를 사실상 뒤엎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하지만 BBK 등 한나라당이 후보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신당 소속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민주당은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에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신당과 단일화가 무산됨에 따라 대선에서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권영길 후보 회의론이 내부적으로 확산되면서 고심중이다. 자칫 내년 총선까지 이 같은 분위기로 갈 경우 우려해 고양시로 출마하는 심상정 의원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노력중이다. 무소속 이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도내 활동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시·군별로 조직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 시민들은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대통령이 됐다. 지난 14~16 대선결과가 그

은 예다. 노무현 후보(16대)는 득표율 면에서 2위와 5%포인트, 김대중 후보(15대)는 2%포인트, 김영삼 후보는 5%포인트 격차를 내며 선거에서 이겼다. 영·호남과 충청 강원 등 각 지역 출신 골고루 분포된 탓이었다.

그러나 17대 대선에서는 이같은 ‘공식’이 깨지고 있다. 한국지방신문 협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율은 49.1%로 2위 무소속 이회창 후보(13.8%)를 크게 앞섰다.

남구 우안동 신기시장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민(54)씨는 “상인들은 이왕이면 먹고 살기 괜찮게 해줄 후보를 찍겠다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분적이 충청도인 김씨는 “지난 번과 비교해보면 출신지역별로 후보를 선택하는 성향은 많이 없어졌다”며 “시장에서 벌어먹고 살기 어려워지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을 뽑으려 한다”고 했다.

죽방촌이 밀집한 중구 북성동에서 정비업을 하는 노장문(50)씨는 “개발 예정지에 사는 원주민 이주대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밝혔다. /경인일보=전상현·김명래기자



17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모 대선 후보의 연설회를 찾은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후보의 연설을 들으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대 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 및 인근 지역에 후보들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미국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후보 'BBK 발언 동영상' 공개 파장 美 조야·교민사회 비상한 관심

미국 조야와 한인 교민사회는 한국 대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막판 상황에 터져나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설립 발언' 동영상 공개가 한국 대선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물론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한국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민사회의 반응은 좀 달랐다.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너무나 당연시돼 왔지만, 이번 동영상 파문이 자칫 한국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며 관심

을 보였다.

정 후보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선이 굳어졌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서 “이 후보의 지난 2000년 광운대 특강 동영상 공개를 계기로 대선판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이번 동영상 발언은 실제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서 밝힌 것처럼 동영상 김경준을 차게세워 주기 위한 덤덤 수순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뉴욕·LA=연합뉴스

■ 대전·충청

‘李-JP’ vs ‘昌-沈’... 표심 혼재

“글쎄, 누가 좋을까” 역대 대선에서 ‘방항파’ 역할을 했던 충청권 유권자의 표심은 17대 대선일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헷사리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충청권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도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충청권에서는 예산과 연고에 있는 이회창 후보의 출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의 맹주였던 김중철 전 대전지청장(JP)가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고, ‘포스트 JP’로 통하

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가 이회창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도 충청인의 선택에 “후선”을 주고 있다.

대전 중앙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윤모(62)씨는 “대선 후보들이 대선에 올 때 마다 시장에 들러 자신을 찍어 달라고는 하지만 사람들 마음은 ‘이명박이나, 이회창이나’로 굳어진 것 같다”면서 두 후보 중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BBK주조자 사건 수사 발표 이후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승한 듯하다. 택시기사 최승재(56)씨는 “검찰발표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명박 만한 사람이 없다”

고 했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42)도 “이런 저런 의혹들이 있지만 경제를 살릴 사람은 이 후보 같다”고 말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대선은 이미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기울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반(反)한나라당 노선을 견지하는 일부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때마침 심 대표가 이회창 후보와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함에 따라 충청권은 대선보다는 벌써 내년 총선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진행되는 느낌이다. /대전일보=한홍구 기자

“또 소외되나” 허무주의의 팽배

■ 강원

역대 대선에서 강원도는 보수적 투표 성향이 강했다. 지난 9~10일 이틀 동안 강원일보를 비롯한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 9개사가 실시한 6차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도내 지지율은 50%를 넘어섰으며 도내 무응답층은 10% 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심정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검찰 수사 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부동층이 과반(한나라당 상정색) 돌결 속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상삼오모인 자리에서도 대선 이야기는 꺼지지 않고 있다. 노인 정에 나온 최모(66)씨는 “정동영이 경제에서 뾰족한 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참정부 사람이란 걸 다 아는 사

실이고, 이명박도 ‘경제’ ‘경제’하는 데 다른 후보들이 워낙 매력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뜬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차라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가 살기 좋았다”고 일갈했다.

매번 되풀이됐던 강원도민의 대선 허무주의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선 후보들의 강원도 방문이 타 지역에 비해 뜸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을 공산이 크다.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후 6차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도내 지지율은 50%를 넘어섰으며 도내 무응답층은 10% 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심정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검찰 수사 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부동층이 과반(한나라당 상정색) 돌결 속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대선에서도 예상대로 보수 성향의 표심이 높게 나타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내심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도내 영서·절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막판 표심 공략이 얼마나 주효할 지 여부가 이번 대선의 강원지역 관련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강원일보=정영선 기자

아시아 각국 또 시 공포

<조류 인플루엔자>

겨울철을 맞아 아시아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AI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이어 AI 바이러스의 본격적인 활동기인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파키스탄과 같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AI 감염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4일 AI로 인한 사망자 수를 1명 더 추가했다. 인도네시아에서 AI 사망은 모두 93명으로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얀마에서도 AI 바이러스 인체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파키스탄에서는 현재까지 2명이 양계장에서 일을 하다 AI 감염으로 사망했으며 인체감염 사례로는 처음으로 파키스탄 당국이 지난 15일 확인했다. /세이=연합뉴스

中 올해의 한자는 ‘불어날 창(漲)’

중국 네티즌들은 올해 벌어진 사건과 한해를 상징하는 한자로 가격 등의 상승을 뜻하는 ‘불어날 창(漲)’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국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텡(騰訊, www.qq.com)이 11일부터 네티즌을 상대로 진행중인 설문 조사에서 17일 오전 현재 ‘창’

은 3만9천여명의 투표자 중 63%에 달하는 2만4천600여표를 얻어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이다.

중국에서 물가, 부동산 가격, 주식 등이 올랐다고 할 때 흔히 쓰이는 창은 모든 방향의 가격이 급등한 올해를 상징하는 한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이=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국비 무료 교육보험가입근로자수급료 환급
《《《 "첫진도 시작반" 《《《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성 앞 전원빌딩 5층
첨단점 ☎ 971-0002 (백이트) 청안동 5층 경주은행 4F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매월초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현금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08년 국가+지방직 시험대비, 동계방학 대강좌!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 안내

행정직	교수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지식직	토목직	검출직	물리화
-----	-----	-----	-----	-----	-----	-----	-----	-----	-----	-----	-----	-----	-----	-----

※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2월 17일 주·야 (총합)반 모집 (합계 수 앞)**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위 (중앙초교 후문) ☎ 222-4560
www.mdgoal.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주점 ☎ 361-8111
북주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원(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출연 강사진!

개강 **1월 2일** (주,야)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현재 강의중 (매일 무료강당 운영)

"첫진도 시작반" 국비무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교육비환급
현재접수중 ☎ 529-8111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신메뉴각각이 추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주점 ☎ 361-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북주점 ☎ 529-8111
▶ 개령동 구시정사거리(중흥동) 대원빌딩 옆 영송빌딩 6층

Final Course 개강 12월 17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란? 전문대 졸업(예정)자, 4학년 대학 2학년인 미취업,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12월 17일 개강 **1학년 대비반**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위) ☎ 227-8088

www.kjkimyong.co.kr 일반대/ 사범대/ 약대/ 한의대

Final Course 개강 12월 17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란? 전문대 졸업(예정)자, 4학년 대학 2학년인 미취업,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12월 17일 개강 **1학년 대비반**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위) ☎ 227-8088